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에 대한 연구동향 탐색

장현정*

국문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목표(objective)와 다문화 교육의 내용,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2014년~2016년까지 3년 동안에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고 현재는 이보다 줄어 새로운 연구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로 초등 고학년 대상,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진행해온 프로그램 개발에서 중등 학습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국어교육 관점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다문화 교육의 목표(objective)와 내용이 '다양성 존중과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문화 교육이론을 국내 현실에 맞게 재개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 '사회 실천'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목표, 다문화 교육 내용, 다문화 교육방법

*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didiyo19@hanmail.net)

I. 서론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¹⁾과 관련한 국내 연구를 반성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모든 학습자를 위한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 다문화 교육이 정책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부터이다. 초기 국내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에 대한 한국어 지원정책 및 한국 문화나 전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동화주의의 형태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자들의 반성과 새로운 방향 모색의 결과로,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범교과 주제로 ‘다문화 교육’을 도입하는 등 그 방향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을 주창하는 다문화주의로 바뀌었다(양영자, 2008; 오은순·강창동·진의남·김선혜·정진웅, 2007; 장한업, 2021). 최근에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육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교육부, 2022). 또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다문화 교수·학습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교육과정(장인실, 2015; 주재홍·김영천, 2014; 주재홍, 2018)이나 다문화 교육모형(김성식·김정원·이인재·장은영, 2020; 김용산·김정호, 2009; 오은순·홍선주·김민정·모경환·김선혜·안지혜, 2008)개발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거대 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다수의 다문화 교수·학습 관련 연구들은 모든 학습자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 예로 “다문화 감수성” 혹은 “상호문화적 감수성”, “다문화 시민성”, “다문화 수용성”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구정화, 2012; 김하나·이인재, 2014; 손녕화·선은정·조인제, 2017; 이향규·양승주·박성춘·이옥순, 2013; 장현정·우신영, 2019; 조상미·전종설·남성희·간기현·선미정, 2012 등). 이 연구들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학습자 역량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계량화된 양적 지표를 활용하여 효과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²⁾.

-
- 1) 프로토타입(prototype)이란 사전적으로는 ‘원형, 기본형, 모델, 표준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예나 기초 혹은 표준형’의 의미로 규정하여 사용하였다.
 - 2) 다문화적 역량이란 ‘역량(competency) 중심 패러다임’을 반영한 용어로 “개인이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소경희, 2007: 8)”을 의미한다. 역량 개념이 가진 총체성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나 현상을 해결하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뿐만이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등 사회적·행동적 요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구자는 다문화적 역량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감수성”, “상호문화적 감수성” 등의 용어와 같은 층위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활발한 연구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학습자의 다문화적 역량이 꾸준히 성장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6년~2020년에 걸쳐 국가 수준의 학생역량을 조사한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에 따르면, 심미적 역량의 소영역에 해당하는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초등학교급에서 고등학교급으로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³⁾ 초등학교급에서는 높았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교육의 양과 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떨어졌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교수·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방증이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문화 교육’이 범교과 주제로 도입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목표(objective) 관련 특성’과 ‘내용과 방법에 관련된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공식적 교육과정 안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표’와 ‘내용’, ‘교육방법’에 관한 관점이 조화를 이루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다문화 교육의 동향과 특징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장인실·차경희, 2012).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들이 지향하는 목표들의 종류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목표(objective)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일반적·추상적 목적(goal)보다는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의 종류를 살펴보고 분석하려 하였다. 그리고 Banks(2016), Bennett(2007), Gay(2002)가 주장한 다문화 교육의 세 차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문화 교육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를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다문화 교육방법’으로 구분하여 도출한 뒤, 이를 분석 기준의 틀로 삼아 선행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반성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문화 교육은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어 일반 교과(예 수학이나 물리학 등)와는 대조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Bennett, 2007).

3)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에서 정의하는 학생역량은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는 개인 및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에서 길러져야 할 능력(남궁지영 외, 2015: 22)”으로 2015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4가지 인간상(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고려하여 6가지 핵심역량(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소영역에 다문화 수용성이 해당하고 하위 지표로는 다양성과 관계성이 존재한다.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2016년~2019년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학교급별로 점수의 변동은 있었으나 계속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순으로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이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대표적인 다문화 이론가들의 주장에 대한 천착을 통해 분석 체계를 정교화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교육에 관한 동향연구는 2007년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프로그램 목표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구성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다. 주로 다문화 교육 효과에 관한 양적 결과를 비교한 메타분석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고은경·노진형, 2014; 김민웅·황재동, 2018). 이 연구는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에 관하여 ‘목표(objective)’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분석 기준을 마련하여 반성적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교육의 결과를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적 사고와 행동, 가치를 ‘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 국내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의 일반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기존 국내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의 목표(objective)는 무엇인가?

셋째, 기존 국내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의 구성요소인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교육의 목표

다문화 교육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낮은 수준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아이디어 혹은 개념을 넘어 교육개혁 운동이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정”(Banks, 2016: 3)으로 이해된다. 대다수 다문화 교육 이론가들은 다문화 교육의 주된 목적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포함하는 전체 교육 환경의 개혁을 통해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지식, 태도, 기능을 향상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Banks, 2016; Bennett, 2007; Gay, 2018).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거대 담론 수준의 다문화 교육의 ‘목적(goal)’이 아닌 구체적·정량적 지표로 표현할 수 있는 ‘목표(objective)’이다.

국내 다문화 교육 선행연구에서 지향하는 ‘목표(objective)’는 ‘다문화 인식 개선’, ‘다문화 감수성(상호문화적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문화다양성’, ‘다문화 시민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은 다문화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환경에 놓인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다문화이해교육’이라고 지칭한다(서민정, 2009; 한재범·김효정, 2021). 이 용어는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에서 “교원 자격연수·직무연수”와 관련된 다문화 정책을 제시할 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장한업, 2021).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 교육을 의미하며,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적 인식을 향상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22). 이해 중심의 다문화 교육을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양영자, 2008)이라고 지칭하거나, 다수자 대상의 인식 개선 교육에 초점을 두는 연구사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이종원·윤여탁, 2020).

‘다문화 감수성’은 둘 이상의 문화가 함께하는 상황에서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을 가진다(Bennet, 1993; Chen & Starosta, 1997).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를 지지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호문화적 감수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김하나·이인재, 2014; 장현정·장성민, 2021). 이 두 관점은 모두 문화 간 소통을 중시하고, 문화 다원주의를 지지하며, 동화주의를 비판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상호문화주의가 문화 간 차이를 역동적 관계로 해석하고, 상호 연관성과 문화 간 교류, 의사소통 혹은 상호이해를 보다 개방적으로 이해한다는 차이가 있다(김영순, 2017).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문화 수용성’이나 ‘문화다양성’을 들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넓은 의미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정도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고,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으로 나누어 연구 대상자의 변화를 측정하기도 한다(민무숙·안상수·김이선·선보영·이명진, 2012;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문화다양성’은 ‘다문화 감수’, ‘다문화 수용성’과 유사하지만 다문화 사회나 다문화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다 보편적인 개념이다(이민술, 2022).

‘다문화 시민성’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를 의미한다(구정화·박선웅, 2011: 5). 다문화 시민성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상호 소통하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불평등을 인식하는 민주사회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성’을 교과과정의 핵심적 개념으로 하는 사회과 교육의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의 목표나 다문화 사회의 궁극적 지향으로서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구정화·박선웅, 2011; 구정화, 2012; 김선미, 2013; 박선웅·우현정, 2015; 박윤경, 2011; 추병완, 2010).

2.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대표 이론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Banks(2016), Bennett(2007), Gay(2002)가 주장한 다문화 교육의 제 차원에 대한 천착을 통해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종합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론가들은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각기 다른 제 차원으로 정의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Banks(2016)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른 대표 이론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문화 교육 내용’과 ‘다문화 교육 방법’으로 분류하고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였다. 이미 오랜 세월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학문 체계의 조탁을 거친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미국의 이론가들이 다문화 교육의 체계를 구성할 때는 미국 사회와 교실의 현실에 맞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다시 우리의 현장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미국의 이론을 우리의 교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연구해온 과정과도 맥락을 함께한다(장인실, 2008; 추병완 2010).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교육 이론가들이 논의한 다문화 교육 구성요소

	Banks(2016)	Bennett(2007)	Gay(2002)	연구자
다문화 교육 내용	내용통합 (content integration)	다문화적 역량 (multicultural competence)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식 기반 개발 (Develop a culturally diversity knowledge base)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텍스트
	지식구성과정 (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			사회 지식에 대한 비판적 능력 개발
	편견 감소 (prejudice reduction)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가르침 (teaching toward social justice)	효과적인 문화 간 의사소통 구축 (Build effective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편견을 넘어선 사회정의 지향

	Banks(2016)	Bennett(2007)	Gay(2002)	연구자
다문화 교육 방법	공평한 교수법 (equity pedagogy)	평등교수법 (equity pedagogy)	문화적 배려와 학습 공동체 구축 (Demonstrate cultural caring and build a learning community)	학습자 개별 특징을 존중하는 교수법
			문화감응 수업 제공 (Deliver culturally responsive instruction)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와 조직 (an empowering schoo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교육과정 개정 (curriculum reform)	문화적 교육과정 설계 (Design culturally relevant curricula)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

첫째,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텍스트’는 Banks(2016)의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 Bennett(2007)의 ‘다문화적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e)’, Gay(2002)의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식 기반 개발(Develop a culturally diversity knowledge)’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문화 교육을 할 때, 다양한 문화와 집단의 사례, 자료,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 구성원들과도 상호작용하며 유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사회과나 국어과를 제외한 교과(예 음악, 수학, 체육 등)는 교수요목의 특성상 다문화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텍스트’를 자신의 교과 특성과 연결지어 다문화적 교육 전략을 사용하면, 다문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선행연구에서 교과연계 다문화 교수·학습을 제안하는 것이 이와 맞닿아 있다(오은순 외, 2008; 김성식 외, 2020).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에서 텍스트 활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에 충분한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다문화적 교육 전략을 사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둘째, ‘사회지식에 대한 비판적 능력 개발’은 Banks(2016)의 ‘지식 구성 과정(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 Bennett(2007)의 ‘다문화적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e)’, Gay(2002)의 ‘효과적인 문화 간 의사소통 구축(Build effective cross-cultural communications)’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연구자는 다문화 이론가들이 주

장하는 제 차원을 유사한 개념들로 묶고자 하였으나 이 구성요소는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지식 구성 과정’은 학습자가 ‘지식’이 사회의 암묵적인 문화적 과정과 준거틀, 편견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차원을 의미한다. ‘다문화적 역량’은 학습자가 다문화적 역량을 향상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Banks의 ‘내용 통합’ 차원과 ‘지식 구성 과정’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문화 간 의사소통 구축’은 민족적·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사고방식은 문화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이를 실제적·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를 Bennett의 ‘다문화적 역량과 맥락을 함께한다고 이해하며, 특히 단순한 상호이해를 넘어 비판적 사고도 함께 함양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에서 ‘사회지식에 대한 비판적 능력 개발’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사회의 암묵적인 문화적 과정과 준거틀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도록 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셋째, ‘편견을 넘어선 사회정의 지향’은 Banks(2016)의 ‘편견 감소(prejudice reduction)’, Bennett(2007)의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가르침(teaching toward social justice)’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문화 교육 담론에서 ‘사회정의’나 ‘사회적 행동’은 최종 목표로 강조되어 왔다(Banks & Banks, 2004; Bennett, 2007; Sleeter & Grant, 2007). 이는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학습자의 편견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들이 사회정의를 위한 실제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에서 ‘편견을 넘어선 사회정의 지향’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다른 문화와 사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과정과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 개별 특징을 존중하는 교수법’은 Banks(2016)의 ‘공평한 교수법(equity pedagogy)’, Bennett(2007)의 ‘평등교수법(equity pedagogy)’, Gay(2002)의 ‘문화적 배려와 학습공동체 구축(Demonstrate cultural caring and build a learning community)’과 ‘문화 감응 수업 제공(Deliver culturally responsive instruction)’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차원은 다문화 교육이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에서도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나 인종, 종교, 성별 등을 고려하여 동등한 학습 기회가 주어지도록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Banks와 Bennett은 번역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화 감응 교수(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로 대표되는 Gay의 견해이다. 그에 따르면, 교수자는 다양한 문화 배경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학

습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와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습자의 문화와 경험을 사용하여 문화적 비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지적 경계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에서 ‘학습자 개별 특징을 존중하는 교수법’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와 개별적 특징을 고려한 수업을 구안했는지, 문화적으로 다양한 비계를 설정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유도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은 Banks(2016)의 ‘학생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와 조직(an empowering schoo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Bennett(2007)의 ‘교육과정 개정 (curriculum reform)’, Gay(2002)의 ‘문화적 교육과정 설계(Design culturally relevant curricula)’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차원은 교실 내 학습 수준에서 발현된다기보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차원의 상위 개념을 아우르며 발현되는 폭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를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형성’으로 범위를 좁혀 교실 수준의 교수·학습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재개념화하였다.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토의 및 토론의 형태)을 유도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문화와 조직을 바꾸는 것도 교실 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처럼 작은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 간 상호작용만을 강조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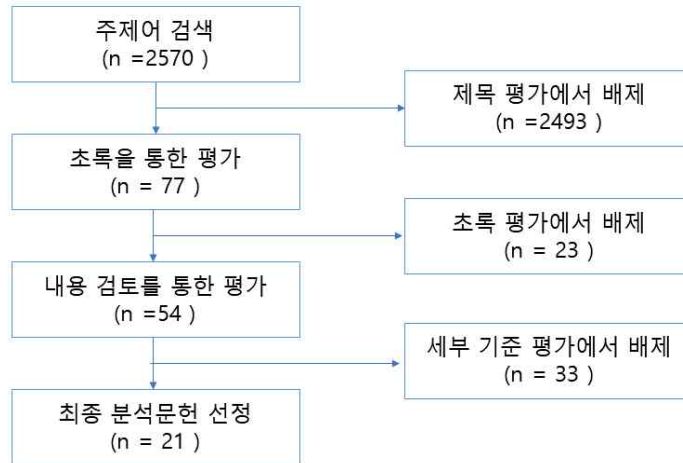
Ⅲ. 연구 방법

1. 논문 선정 기준과 과정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연구된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반성적으로 분석 검토하고자,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을 참고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은 정보의 큰 체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찾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 어떤 것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구분하고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기에 적절한 연구 방법이다. 연구자가 설정한 특정 질문에 답하고자 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며 많은 양의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평가 및

전달하는 데 사용하기 적절하다(Petticrew & Roberts, 2008: 2-10). 다음의 과정에 따라서 분석에 포함할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국내의 주요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DBpia, KISS에 2007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발간된 KCI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인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에 사용한 주요 키워드는 ‘다문화 교수·학습’,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다문화 교수·학습 방안’ 이다. 검색 결과 RISS는 1,166편, Dbpia는 1,142편, KISS는 552편이 검색되었다. 둘째, 1차 선별 작업 과정에서 원문이 확인되지 않는 논문과 네 곳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되는 논문을 제외하였다. 초록을 확인하여 초중고 대상이 아닌 경우, 모든 학습자(다수의 일반 학습자) 대상이 아닌 경우,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모형 차원의 거대 담론을 다룬 연구를 제외하여 54편을 1차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셋째, 선별된 문헌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검색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연구를 확인하는 2차 선별 과정을 거쳤다. 추가된 논문의 전문을 다시 확인하고 연구에서 지향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제외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21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다음의 선정 및 배제 기준을 통해 선별하였다. 첫째, 발행연도를 2007년부터 2022년 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주제로 ‘다문화 교육’을 도입하며, 각 교과와 연계한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나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의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연구 자료의 유형을 KCI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설정하고, 학위논문은 배제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은 초중고 비다문화 학습자 혹은 다문화 학습자와 비다문화 학습자 모두를 포함하는 연구만으로 선정하여 연구자와 같은 문제의식 지닌 연구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제목에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밝히고 있더라도 프로토타입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교수·학습과정안을 예시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연구자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개발된 프로그램의 원형이 지향하는 목표와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건을 만족한 논문 총 21편이 선정되었다. 분석 논문을 선정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헌분석 과정

2. 논문 분석 기준과 틀

이 연구는 2007년 이후 진행된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연구의 프로토타입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 교육목표(objective)와 관련 요소’, ‘다문화 교육 구성요소’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분석 틀을 만들기 위하여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분석 기준과 분석 방법을 참고하였다(고은경·노진형, 2014; 임유하·지은, 2020). 그러나 이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구성한 다문화 교육의 구성요소로서의 ‘내용’과 ‘목표’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분석의 정치함을 도모하고자 Bennett(2007) 이론에 근거하여 다문화 교육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선행연구(장인실·차경희, 2012)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이론을 바탕으로 내용에 해당하는 ‘다문화 교육 구성요소’의 분석 기준을 따로 구안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분석 틀

구분		내용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	출판 현황	저자(연도), 제목, 학술지(권/호)
	연구 설계 유형	① 양적연구, ② 질적연구, ③ 혼합연구, ④ 개발연구
	대상자	초등 ~ 고등학생 연령의 모든 학습자
다문화 교육목표(objective)와 관련 요소	목표(objective)	다문화인식, 다문화 감수성(상호문화적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시민성, 반편견 교육
	이론적 근거 및 주제어	연구 결과에서 서술
	프로그램 구성	단계와 차시
	효과성(유/무)	이 연구는 양적 효과 간 비교를 통한 메타분석이 목적이 아님. 효과의 유/무만 표기하고 측정하지 않은 경우, ‘ ’ 표기.

〈표 3〉 다문화 교육 구성요소 분석 기준

영역	구성 요소	분석 기준
다문화 교육 내용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텍스트	1-㉠. 학습자가 서로 다른 문화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는가?
		1-㉡. 다문화적 교육 전략을 사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가?
	사회지식에 대한 비판적 능력 개발	2-㉠. 사회의 암묵적인 문화적 과정과 준거틀, 편견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2-㉡.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편견을 넘어선 사회정의 지향	3-㉠. 다른 문화와 사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과정이 존재하는가?
		3-㉡.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내용이 존재하는가?
다문화 교육 방법	학습자 개별 특징을 존중하는 교수법	4-㉠.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와 개별적 특징을 고려한 수업을 구안하고 있는가?
		4-㉡. 문화적으로 다양한 비계를 설정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유도하는가?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	5-㉠. 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토의 및 토론의 형태)을 유도하고 있는가?
		5-㉡.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3. 분석자 간 신뢰도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분석한 과정에는 대학원에서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다문화사회교수 방법론’을 이수한 전문가 세 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1차로 연구의 방향과 분석 기준에 대한 회의를 2인의 전문가와 한 뒤 21편 중 1편만 함께 분석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구성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 간접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 직접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2차로 나머지 20편은 연구자들이 각자 진행하고 항목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3차로 분석자 간 판단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 → 0’, ‘△ → 1’, ‘○ → 2’로 코딩하여 플레이스(Fleiss)의 일반화된 카파 계수(Generalized Kappa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 개별 코딩 분석 결과에 대한 Fleiss’s k는 .842로 신뢰도가 양호했다.

IV. 연구 결과

1.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최종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의 목록은 다음 <표 4> 같다.

<표 4>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목록

No	저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 (권/호)	연구 설계 유형	대상자
1	장인실, 유영식 (2010)	다문화 교육 모형과 교과서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법의 효과성 연구	초등교육 연구 (23/1)	양적연구 (2실험집단- 단일대조군)	초6
2	강선경, 김현진 (201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인종 및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 연구 (18/11)	양적연구 (실험-통제)	초4
3	이민경, 양계민 (2011)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통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고찰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양적연구 (실험-통제)	초5, 6

No	저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 (권/호)	연구 설계 유형	대상자
4	장인실, 김명희 (2011)	Bennett 모형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50)	혼합연구 (양적 + 질적)	초6
5	구정화 (2012)	다문화 시민성을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회과교육 (51/1)	개발연구	초5, 6
6	조상미, 전종설 남성희, 간기현 선미정 (2012)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가족과 문화 (24/4)	개발연구(효 과성 검증)	초1~4
7	김하나, 이인재 (2014)	초등학생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온라인 그림동화 프로그램의 효과	윤리교육 연구 (33)	양적연구 (단일집단)	초3
8	박길자(2014)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중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문화 불평등과 문화정치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연구 (21/3)	개발연구	중등
9	송영라, 방기혁 (2015)	초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실과교육 연구 (21/3)	개발연구(효 과성 검증)	초6
10	전귀자, 조덕주 (2015)	ALACT 모형을 활용한 반성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교육 연구 (23/3)	개발연구	초- 고학년
11	박선웅, 우현정 (2015)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회과교육 연구 (22/1)	개발연구	고등
12	남혜림, 박선호 (2015)	다문화 아동문학을 활용한 초등영어 협력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	초등영어 교육 (21/4)	혼합연구 (양적 + 질적)	초5
13	박순철, 유지원 (2015)	교육연극을 활용한 초등다문화교육 4E프로그램 개발	한국초등 교육 (26/3)	개발연구(효 과성 검증)	초4
14	이선영(2016)	초등학생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적용 실행연구-관계성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이해 교육연구 (11/2)	개발 연구	초4
15	박세훈, 장인실 (2016)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젝트 수업의 효과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 연구 (16/3)	혼합연구 (양적 + 질적)	초6

No	저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 (권/호)	연구 설계 유형	대상자
16	손녕희, 신은정 조인제(2017)	중·고등학생 대상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교육문화 연구 (23/6)	혼합연구 (양적 + 질적)	중1~2 교1
17	함형준, 김정원 (2018)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세계 전래동화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교육 연구 (11/1)	혼합연구 (양적 + 질적)	초6
18	공진실, 장인실 (2018)	대립토론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논총 (38/4)	혼합연구 (양적 + 질적)	초6
19	서재복, 임명희 (2018)	PBL 활용 다문화동화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다문화 감수성에 관한 효과	교육논총 (39/3)	양적연구(실 험-통제)	초5
20	이유진, 김정원 (2020)	영화 '가버나움'을 활용한 초등저학년 대상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다문화교육 연구 (13/2)	질적연구	초- 저학년
21	장현정, 장성민 (2021)	소통 중심의 다문화 교수·학습 설계가 상호문화적 감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Banks의 이론적 모형의 구형	리터러시연 구 (12/6)	양적연구(실 험-통제)	초5

1) 연도별 출판 현황

이 연구에서 분석한 21편의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1.75편 정도가 출판되어, 이 분야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2015년(5편, 23.8%)이었다. 특히, 2014년~2016년까지 3년 동안 출판된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연구는 9편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오히려 현재는 학문적 열기가 가라앉은 추세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연구의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사회교육(4편, 19%)', '초등교육(3편, 16%)', '다문화교육(4편, 19%)' 등을 기치로 한 학술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다문화교육과 사회교육의 교과 내용 특성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사회과에서 다문화 교수·프로그램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로 대부분 프로그램이 읽기, 쓰기, 말하기, 토의와 토론 등의 국어의 도구적 기능(혹은 의사소통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국어교육' 중심의 학술지에서 발행된 논문은 한 편인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2) 연구 설계 유형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연구 설계 유형을 ① 양적연구, ② 질적연구, ③ 혼합연구, ④ 개발연구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 설계의 유형을 나누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프로그램 분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연구’ 항목을 추가하였다. 개발연구는 교육과정, 교수매체 및 공학, 수업 등 교육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모형이나 프로그램을 연구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설계연구, 실천 연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Van den Akker, 1999).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① 양적연구는 6편(28.6%), ② 질적연구는 1편(4.7%), ③ 혼합연구는 6편(28.6%), ④ 개발연구는 8편(38.1%)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살펴보는 분석인 만큼 개발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양적연구는 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중 유일하게 장인실·유영식(2010)에서 ‘실험집단 2개와 통제집단’의 연구 설계를 진행하고 더불어 프로그램의 지연효과를 측정하여 연구의 정치함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연구의 효과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논리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질적연구는 이유진·김정원(2020)의 연구 한 편만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초등 저학년 학습자가 설문지를 제대로 작성하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에 질적연구로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원인을 선행연구의 제언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010년 초반 연구에서는 효과성 측정을 양적으로만 하다 보면 실제 어떤 부분에서 학습자의 다문화 역량이 성장하였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질적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인실·유영식, 2010; 조상미 외, 2012). 연구자는 이 부분을 최근의 후속 연구들이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3) 대상자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초등학생이 18편(86%)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5편(71.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편(14%)밖에 되지 않았고,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편만 존재하였다. 연구자가 서론에서 지적한,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에서 학습자의 다문화 수용성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순으로 점수가 낮게 나온 원인을 이 분석 결과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았던 것은 다문화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실제 수업이 현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연구는 사례도 부족하고, 입시로 인한 학습의 부담과 주요교과 위주의 수업으로 인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다문화 교수·학습의 단절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다문화 수용성 지수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였다.

2. 다문화 교육목표(objective)와 관련 요소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목표(objective)와 관련 요소의 특성은 다음 <표 5> 같다.

<표 5>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목표(objective)와 관련 요소 분석

No	목표 (objective)	다문화 교수·학습의 이론적 근거 및 주제어 ⁴⁾	프로그램 구성	효과성 (유/무)
1	다문화 인식	Bennett(2007), Gay(1997), 장인실(2008)	6단계 14 차시	유 (지속성 포함)
2	다문화 인식	Kendall(1983)의 다문화교육 활동 목적	6 차시	유
3	다문화 인식	다문화 교육에서의 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	6 차시	유
4	다문화 인식	Bennett 모형	6단계 16 차시	유
5	다문화 시민성	Tyler(1949)의 목표모형에 따라 다문화 교육과정을 설계 후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념 중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대단원 4 소단원 16	.
6	다문화 수용성	Kendall(1983)의 다문화교육 활동 목적, 통합 프로그램	4단계 6 차시	유
7	상호문화적 감수성	창의체험활동, 올리블리 온라인 그림동화, 존중성	6 차시	유
8	다문화 시민성	문화 불평등과 문화정치학, 다문화교육 내용체계	대단원 3 소단원 13	.
9	다문화 인식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 요소 (배려와 협력, 편견 해소, 양성 평등, 장애 이해, 다문화 감수성), 창의적 체험활동	10 차시	유

4) 주제어에서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다문화 등의 이미 연구의 제목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

No	목표 (objective)	다문화 교수·학습의 이론적 근거 및 주제어 ⁴⁾	프로그램 구성	효과성 (유/무)
10	다문화 인식	반성의 절차인 ALACT 모형 정체성, 다양성, 사회정의	3단계 15 차시	.
11	다문화 시민성	문화 권력, 연대감과 사회 참여, 비판적 다문화 교육	대단원 4 소단원 12	.
12	다문화 수용성	문화이해, 협력 읽기, 협력 쓰기 다문화 아동문학(영문)	5차시	유
13	다문화적 인식	EEE(Esteem, Empathy, Equity)모델, Exchange(소통), 교육 연구	4단계 10 차시	유
14	다문화 감수성	관계성, 공감, 소통, 협력 교사 성찰, 실행연구	4차시	.
15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프로젝트 수업, 스마트 기기	3단계 15 차시	유
16	다문화 감수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영역에 따른 9가지 핵심역량	4차시	유
17	다문화 수용성	심미적 역량, 공동체 역량, 인식-내면화-행동 세계 전래동화	3단계 12차시	유
18	다문화 인식	장인실(2008) 다문화 교사교육 과정 모형 대립토론	4단계 16 차시	유
19	다문화 감수성	PBL 수업, 다문화동화교육	20 차시	유
20	다문화 인식	'가버나움' 영화, 초등 저학년생	5 주제 10 차시	유
21	상호문화적 감수성	Banks(2016)의 이론적 모형 구현	5 차시	유

1) 목표(objective)의 유형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목표(objective)의 유형은 ① 다문화 인식, ② 다문화 감수성(상호문화적 감수성), ③ 다문화 수용성, ④ 다문화 시민성 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문화 인식 개선은 다수의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 가장 폭넓은 개념으로 9편(42.9%)의 연구가 이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다만,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인식 개선의 범위가 약간씩 다르고 반편견,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포괄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감수성(상호문화적 감수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6편(28.5%)을

과 제시된 목표와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였다.

차지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종종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유사한 개념에 두고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다문화 수용성을 목표로 하는 3편까지 합하면 다문화 인식 개선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시민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도 3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은 학습자가 다문화 사회에서 자아정체성을 기반으로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주체적·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목표의 명칭과 세부 항목만이 다를 뿐 학습자의 다문화적 역량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으로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2) 다문화 교수·학습의 이론적 근거 및 주제어

다문화 교수·학습의 이론적 근거 및 주제어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미국의 다문화 교육이론가들의 주장에서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론적 기반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1, 2, 4, 6, 13, 18, 21번으로 7편(33.3%)이었다. 미국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와 장인실(2008)과 같이 국내 교실 상황에 맞도록 이론을 재개념화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미국의 다문화 교육 현실과 우리의 현실은 차이가 있어 이론을 연구에 가져올 때는 우리의 다문화 교육 현장에 맞는 재개념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서사 텍스트였다. 주로 동화(7, 12, 17, 19, 21)의 형태로 영문, 온라인 그림동화, 세계 전래동화 등 매체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이외에 교육 연극(13), 대립토론(18), 영화(20)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면서도 다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셋째, 대부분의 이론적 근거와 주제어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10, 11, 18번처럼 다양성 존중에서 더 나아가 사회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사회정의, 사회 참여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다문화 교육 연구가 다양성 존중 수준이거나 더 나아가도 반면견 교육 수준에서 머무른다는 것이다. 원인은 대상 학습자가 주로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쉽게 구안하고 구성요소는 사회정의와 사회 참여까지 모두 포함하는 연구 설계가 필

No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텍스트		사회 지식에 대한 비판적 능력 개발		편견을 넘어선 사회정의 지향		학습자 개별 특징을 존중하는 교수법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	
	1-①	1-②	2-①	2-②	3-①	3-②	4-①	4-②	5-①	5-②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17	○	○	△	○	○	·	○	○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	○	○	○	○	○	○	○	○	○	○

이 연구에서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내용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으로 표시하고, 간접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 직접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 → 0’, ‘△ → 1’, ‘○ → 2’로 코딩한 결과 전체 평균이 1.71로 대부분의 연구가 다문화 구성요소를 대체로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평균값에 미치지 못한 연구는 다섯 편으로 1, 2, 7, 13, 14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학업 수준을 고려하여 다문화 교육의 다양성과 이해와 존중, 공감 등의 요소를 강조하였기 때문이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이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텍스트’와 ‘학습자 개별 특징을 존중하는 교수법’을 고르게 사용하여 학습자의 다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균의 함정에 빠져 모든 프로그램이 다문화 구성요소를 고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 결과이다. 연구자는 전체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⁵⁾. 첫째, 다수의 프로그램이 두 번째 구성요소인 ‘사회지식에 대한 비판적 능력 개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5)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반성적 검토를 위하여 양적 분석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질적인 분석 내용을 추가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내용이 제시한 분석 기준처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다소 인위적이고 분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한 내용 이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

국내의 다문화 교육이 주로 '다양성 존중'과 '이해 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존 사회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부족하였다. 다문화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특정 계층의 관점에 치우쳐 있는 사회의 지배적 담론을 개혁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 번째 구성요소인 '편견을 넘어선 사회정의 지향'에서 편견과 차별에 관한 부분은 교육하고 있으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 지향'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교육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습자의 연령과 학업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다문화 교육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다문화 교육의 결과가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습자일 지라도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지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다섯 번째 구성요소인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토론, 토의 등 다양한 협력학습 방법 활용하지만 어떠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계속 지적해온 문제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과 타자 존중 부분에 치우친 교육 내용으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학습자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공동체 문화에 대한 모색은 충분히 교육하지 못하고 있었다.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2007년 이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개발된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다룬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총 21편을 선정하고,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목표(objective)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2010년~ 2021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1.75편 정도가 진행되었고, 2014년~2016년까지 3년 동안의 연구가 9편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편뿐이라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연구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사회교육', '초등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기치로 하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다수 프로그램이 국어의 도구적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국어교육’ 중심의 학술지 발행 논문은 1편밖에 되지 않아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 설계유형은 양적연구, 혼합연구, 개발연구가 고르게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혼합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15편(71.5%)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은 1편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objective)는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감수성(상호문화적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시민성 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목표의 명칭과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학습자의 다문화적 역량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으로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론적 근거를 가져올 때 주로 미국의 이론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는 국내 교육 현실에 맞는 재개념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면서도 다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의 핵심인 이론적 근거나 주제가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정의 지향이나 사회적 참여를 포함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었다.

다양성 존중과 이해에 초점을 맞춘 국내 다문화 교육의 경향은 다문화 교육 구성요소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텍스트’와 ‘학습자 개별 특징을 존중하는 교수법’은 충분히 활용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사회지식에 대한 비판적 능력 개발’, ‘사회정의 지향’,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 등은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정의’, ‘사회적 실천’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정 부분에만 집중한 다문화 교육은 피상적이라는 한계점을 내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려 한다.

첫째,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하고자 할 때, 다문화 교육 내용(구성요소)의 제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다양성 존중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진정한 다문화 교육의 구현이라고 할 수 없다. 학습자들이 정치하게 계획된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다양성 존중과 이해’ 뿐만 아니라 ‘사회 지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 ‘반편견’, ‘사회정의 지향’까지 고르게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 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초등 고학년에만 맞추어진 교육에서 나아가 중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범교과 학습의 주제로 ‘다문화 교육’이 존재하고 있어 학년 급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는 공식적 교육과

정 안에서 ‘다문화 교육’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조탁 과정을 거쳐 지금보다 체계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끝으로 ‘국어교육’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고, 쓰고, 말하는 국어의 도구적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텍스트 선정이나 학습의 과정에서 이러한 국어교육의 범교과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정치함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안이 앞으로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선경·김현진(201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인종 및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59-282.
- 고은경·노진형(2014). 국내 유아 다문화 교육 효과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유아교육연구*, 34(3), 425-454.
- 공진실·장인실(2018). 대립토론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논총*, 38(4), 271-292.
- 교육부(2022).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 구정화(2012). 다문화 시민성을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회과교육*, 51(1), 1-18.
- 구정화·박선웅(2011).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목표 체계 구성. *시민교육연구*, 43(3), 1-27.
- 권희경·이현주·남궁지영·박경호·최원석·길혜지(2018). 2018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권희경·김주아·박경호·안해정·최인희(2019). 2019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길혜지·남궁지영·김주아·박성호·김혜자·김훈호(2017). 2017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웅·황재동(2018). 초·중등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2), 1-24.
- 김선미(2013). 다문화시민성에 관한 한국 사회과교육과정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0(3), 55-68
- 김성식·김정원·이인재·장은영(2020). 초등 교과융합 다문화교육을 위한 다문화 교육모형(IDEA)의 개발. *한국초등교육*, 31(4), 73-97.
- 김영순(201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북코리아.
- 김용신·김정호(2009). 사회과 다문화 수업을 위한 CAT 모형의 구안. *사회과교육*, 48(2), 65-77.
- 김하나·이인재(2014). 초등학생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온라인 그림동화 프로그램의 효과. *윤리교육연구*, 33, 1-25.
- 남궁지영·김양분·박경호·정동철·박현정(2015).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조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6). 2016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남혜림·박선호(2015). 다문화 아동문학을 활용한 초등영어 협력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 *초등영어교육*, 21(4), 171-198.

- 민무숙·안상수·김이선·선보영·이명진(2012).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길자(2014).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중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 불평등과 문화정치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21(3), 101-117.
- 박선웅·우현정(2015).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22(1), 127-144.
- 박세훈·장인실(2016).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젝트 수업의 효과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6(3), 991-1010.
- 박순철·유지원(2015). 교육연극을 활용한 초등다문화교육 4E(사이)프로그램 개발. 한국초등교육, 26(3), 301-320.
- 박윤경(2011). 초등 사회과 다문화 교육과정 및 수업안 개발 연구. 시민교육연구, 43(2), 57-90.
- 서민정(2009). 다문화 이해 교육 중심 제재 선정 원리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39, 229-259.
- 서재복·임명희(2019). PBL활용 다문화동화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다문화 감수성에 관한 효과. 교육논총, 39(3), 107-125.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손녕화·선은정·조인제(2017). 중·고등학생 대상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교육 문화연구, 23(6), 715-748.
- 송영라·방기혁(2015) 초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분석. 실과교육연구, 21(3), 95-114.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영자(2008).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은순·강창동·진의남·김선희·정진웅(2007).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오은순·홍신주·김민정·모경환·김선희·안지혜(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II)-사회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민경·양계민(2011).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통한 다문화 교육 방향성 고찰.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76-199.
- 이민술(2022).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역량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의식의 매개효과.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선영(2016). 초등학생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적용 실행연구-관계성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1(2), 125-152.
- 이유진·김정원(2020). 영화 '가버나움'을 활용한 초등저학년 대상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 개발과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3(2), 1-20.
- 이종원·윤여탁(2020). 국어교육에서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인식 교육의 가능성 탐색: 국어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5-125.
- 이향규·양승주·박성춘·이옥순(2013).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연구.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이홍우(2010). (증보) 교육과정 탐구, 박영사.
- 임유하·지은(2020). 학령기 대상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동향 및 질적지표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1(2), 613-639.
- 장인실(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2), 281-305.
- _____(2015). 다문화교육 실행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33(2), 45-70.
- 장인실·김명희(2011). Bennett 모형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과 자이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50, 123-146.
- 장인실·유영식(2010). 다문화 교육 모형과 교과서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법의 효과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23(1), 141-161.
- 장인실·차경희(2012). 한국 다문화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Bennett이론에 근거하여. *한국교육학연구*, 18(1), 283-302.
- 장한업(2021).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대책(2006~2021)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제언.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1-21.
- 장현정·우신영(2019).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5(5), 759-788.
- 장현정·장성민(2021년). 소통 중심의 다문화 교수·학습 설계가 상호문화적 감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Banks의 이론적 모형의 구현. *리터러시연구*, 12(6), 37-58.
- 전귀자·조덕주(2015). ALACT 모형을 활용한 반성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교육연구*, 23(3), 379-408.
- 주재홍·김영천(2014).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실천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연구*, 32(4), 103-136.
- 주재홍(2018).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개념화. *교육문화연구*, 24(1), 599-623.
- 조상미·전종설·남성희·간기현·선미정(2012).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가족과 문화*, 24(4), 103-134.
- 추병완(2010).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문화 감응 교수 방법 개발 - 교실 수업 전략을 중심으로 -. *교육과정평가연구*, 13(2), 103-122.
- 한재범·김효정(2021). 다문화교육정책 실행의 일관성 분석: 다문화이해교육을 중심으로. *초등*

교육연구, 34(1), 291-315.

- 함형준·김정원(2018).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세계 전래동화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11(1), 109-132.
- Banks, J. A. & Banks, C. A. (Eds.)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Banks, J. A. (2016). *Multicultural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goals*. In J. A. Banks & C. A. M. Banks 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9th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th ed.). Boston, MA: Pearson.
- Bennett, M. J. (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R. M. Paige(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2nd ed., pp. 21-71).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Bruner, J. S. (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n, G. M. & Starosta, W. J. (1997).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Human Communication, 1*, 1-16.
- Gay, G. (2002). Preparing for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3*(2), 106-116.
- _____ (2018),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eachers college press.
- Kendall, F. E. (1983). *Diversity in the Classroom: A Multicultural Approach to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Petticrew, M., & Roberts, H. (2008). *Systematic reviews in the social sciences: A practical guide*. Oxford: John Wiley & Sons.
- Sleeter, C. E. & Grant, C. A. (2009).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6th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Van den Akker, J. (1999). *Principles and methods of development research*. In J. van den Akker, N. Nieveen, R. M. Branch, K. L. Gustfson & T. Plomp (Eds.), *Design methodology and development research in education and training*. 1-14.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ABSTRACT〉

Exploring Research Trends on Prototypes of Multi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s

Jang, Hyeon-Jeong*

This study analyzes the teaching/learning program prototype developed fo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cusing on multicultural education's objective, content, and teaching methods, and seeks implications for future program development. First,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multicultural teaching/learning program was the most actively developed during the three years from 2014 to 2016. It also indicates that a new motivation for research should emerge, for the development of those programs has currently decreased. Second, the program so far was developed primarily for upper elementary students based on social education. However,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gram's target to secondary education learners and develop i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rd, the objective and content of the current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tend to focus on 'respect and understanding of divers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should be reconceptualized to fit the situation in Korea. In addition, the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enable learners to achieve 'social justice' and 'social practice,' which are the ultimate goals of multicultural educ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Prototype, Objective, Multicultural Education Contents, Multicultural Education Methods

논문 투고일	2022. 04. 20
논문 심사일	2022. 05. 08
게재 확정일	2022. 05. 16

* Ph.D. student, Inha University